

용비어천가 | 정인지 외

[제123장]

讒口(참구)ㅣ 만하야 罪(죄) ᄃᆞ마 일러러니 功臣(공신)을 살아 救(구)ᄃᆞ시니
工巧(공교)ᄃᆞ 하리 甚(심)ᄃᆞ야 貝錦(패금)을 일우려커든 이 ᄃᆞ들 닛디 마르쇼셔

헐뜯는 말로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태종은) 공신을 살려 구하시니.
간사하고 현혹하는 참소가 심해서 ‘패금’을 이루려 하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패금은, 조개 패, 비단 금.

시경에, 조개는 물에서 사는 벌레로 무늬가 비단과 같다 함.

그 아름다운 모양으로 더욱 아름다운 비단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잘못으로 큰 죄를 만들어 내는 상황을 가리킴.

[제124장]

洙泗正學(수사정학)이 聖性(성성)에 불그실썩 異端(이단)을 排斥(배척)ᄃᆞ시니
裔戎邪說(예용사설)이 罪福(죄복)을 저히습거든 이 ᄃᆞ들 닛디 마르쇼셔

공자의 바른 학문이 성성의 본성으로 스스로 밝혀지니, (이와) 다른 이단을 홀로 배척하시니.

융족의 사악한 설(불교가 서축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죄와 복으로 위협하거든 즉, 불교의 말이 죄로 위협하고 복으로 현혹하거든,
이 뜻을 잊지마소서.

[제125장]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ᄃᆞ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ᄃᆞ샤 卜年(복년)이 그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수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ᄃᆞ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낙수)에 山行(산행) 가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천세 위에 말없이 정하신 한강 북쪽에,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시어, (나라 전할) 세월이 끝이 없으시니,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니)
자자손손 훌륭한 자손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힘쓰셔야 나라가 더욱 굳으실 것입니다.

아,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임금님이시여 아소서. (하나라 태강처럼) 낙양 멀리에서 사냥하고 놀면서 조상의 공덕만을 믿으시겠습니까?